

자금시장 한파 속 바이오기업, IPO 도전... 흥행 반전 '귀추'

자금 시장 한파 속에 연말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다시 시작됐다. 올 한해 바이오주의 혹독한 실패가 계속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IPO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2조원 규모 대어도 대기하고 있어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2일 인벤티지랩을 시작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IPO에 도전한다. 인벤티지랩은 11~18일 청약유치를 거쳐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지난 8~9일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1만2000원에 확정했다.

인벤티지랩은 마이크로플루이드스(미세유체역학)를 기반으로 약물전달기술(DDS)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다. 마이크로스피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과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에 이어 바이오인프라가 상장에 도전한다. 바이오인프라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마치고, 22~23일 일반투자자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공모 희망가는 2만3000~2



R&D 자금조달 차원 IPO 강행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개발사
인벤티지랩 오늘 코스닥 상장
진단기업 바이오노트 연내 도전

만6000원, 공모금액은 약 230억~260억원 규모다.

바이오인프라는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으로 2021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다국적 제약사, 대기업 계열(SK케미칼, LG생명과학 등) 등 다수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진단기업 바이오노트는 연내 상장에 다시 나선다. 당초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이달 중 수요예측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서 진단기업들의 실적 감소 우려가 커져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상장을 연기했다. 기관대상 수요예측은 오는 12월8~9일, 공모청약은 12월13~14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예정주식수는 총 1300만주로 희망 공모가는 1만8000~2만2000원이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8712억~2조2870억원에 달한다.

다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벤티지랩의 경우 일반 청약 최종 경쟁률은 5.99대 1, 기관 투자자 대상 경쟁률이 14.4대 1에 그쳤다. 시장상황을 반영해 최종 공모가

도 기존 희망 공모가 최상단보다 54% 가량 낮은 1만2000원에 확정했다.

바이오노트 역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 감소로 기업가치 고평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9년 400억원대에 그쳤던 바이오노트의 매출액은 2020년 이후 6300억원까지 올랐지만 올해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상반기 바이오노트 매출액은 3934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줄었고, 3분기까지 매출액 역시 14.2% 줄어들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흥행에 성공한 바이오주는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된 알파바이오 뿐이었다"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당분간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하려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하지만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이 IPO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자금조달 때문"이라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예정대로 연구개발(R&D), 임상을 이어가려면 공모 규모가 줄더라도 IPO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지오영 일반의약품 광고마케팅 도전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오영이 일반의약품 광고마케팅을 시작한다. 기존 주력사업인 의약품 유통을 넘어 광고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오영그룹은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유씨비제약과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사진)' 공급을 위한 신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지오영이 국내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에서 일반의약품인 지르텍 10정에 대한 독점적 영업,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광고도 계획 중이다.

약품 유통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존 제약회사 의약품의 포장,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국내 의약품 유통기업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을 광고와 영업 활동 등을 포함한 국내마케팅에 나선 것은 지오영이 처음이다.

지르텍은 국내 항히스타민제제 시장에서 30년 이상 입지를 공고히 다져온 알레르기질환 치료제의 대표 제품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국내 매출을 기록 중인 '빅 프로덕트(Big Product)' 일반의약품이다.



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동물실험서 모발 증대 확인"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 발모효과도 검증... 신약 개발 기대

JW중외제약이 개발한 표적 탈모치료제가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수 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기존 탈모치료제를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신약 개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JW중외제약은 자사 연구진이 새롭게 규명한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의 작용기전과 전임상 효능평가 결과를 'Wnt 2022' 학회에서 최초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JW0061은 피부와 모낭 줄기세포

에 있는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시키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줄기세포가 모낭 줄기세포로 변해 모낭으로 분화하는데 필요하다. 특히, 모근 끝에 위치해 모발의 성장과 유지를 조절하는 모유두(Dermal Papilla) 세포 증식에도 관여한다.

이번에 발표한 전임상 결과에 따르면, JW0061이 모유두 세포에 있는 G

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가 활성화되는 작용기전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와 함께 모발이 자라는 생장기의 발모와 모낭수 증가 효과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도 발표했다.

JW중외제약은 동물 모델에서 JW0061, 표준치료제, 위약 등을 각각 실험부위에 도포한 결과, 약물 도포를 시작한 지 34일째 기준 위약군 대비 JW0061의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표준치료제 대비 동등 이상의 발모 효과를 검증했으며, JW0061과 표준치료제

병용요법은 최대 발모 효과를 냈다.

모발의 성장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순으로 세 단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평균 50일 이상 소요되는 생장기 진입 시점을 JW0061 도포로 15일 이상 앞당긴 결과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 JW0061을 기존 탈모치료제를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신약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 2024년 상반기 JW0061의 임상시험 개시를 목표로 GLP 비임상 독성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국 피부과 분야 핵심의료진과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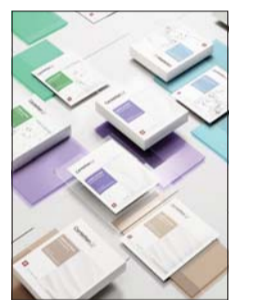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센텔리안24 피부 고민별 '마데카랩 마스크'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주름·기미·수분·모공 등 피부 고민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제품 '마데카랩 마스크' 4종(사진)을 출시한다.

제품 4종 모두 동국제약의 핵심성분 TEC 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를 함유했으며 리포좀 공법을 활용한 특허받은 '플러스솜'을 적용해 흡수력을 높였다.

먼저 '링클 리바이탈라이징'은 주름 개선 특허 성분을 함유해 강력한 주름 개선 효과와 피부 리프팅 효과를 선사한다. 임상을 통해 눈가·입가·이마 등 부위에서 8종의 깊은 주름 개선과 8종의 주름골 리프팅 효과가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

다시 떠나는 해외여행, 감염병 주의보... "지역·시기별 대비"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예방접종 확인, 손 씻기 중요"

해외여행자가 부쩍 늘면서 감염병 주의보가 커졌다.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어떤 지역으로, 언제 여행을 떠나는지에 따라 대비를 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별 감염병이나 접종에 대한 정보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홈페이지의 '여행자의 건강(Travelers' Health)'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감염병NOW'가 있다. 해외감염병NOW에서는 국가별 감염병과 예방 정보, 예방접종 인증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경우 출국 10일 전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황열이나 콜레라 백신 등은 국제 공인 예방접종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이 외에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장티푸스나 A형간염 백신도 출국 2주 전에는 접종해야 한다.

특히 면역 저하자, 임신부, 소아와 노령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면역 저하는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 이식 경험자,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자, 비장 절제술 경험자, HIV 감염자 등인데, 면역 저하자는 예

방접종 전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한 뒤 예방접종을 결정해야 한다.

임산부가 안전하게 여행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임신 2기(13~28주)다. 임신부는 무엇보다 '물갈이'라고 불리는 설사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음식물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신 중에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하지 않거나, 꼭 여행해야 할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을 잘 챙겨먹는 것도 중요하다.

소아와 노령층 또한 필요한 예방접종을 다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령층은 필수 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백신 등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약을 잘 챙기는 것도

필수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배지연 전문의(사진)는 "해외여행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라며 "손씻기만으로 수인성이나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뎅기열은 백신이 따로 없는 만큼 이밖에 여행 중에는 모기나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길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나 조류, 야생동물과의 접촉 또한 피해야 한다.

대부분 감염병은 귀국 후 3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귀국 후 발열, 발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우선 신고를 한 뒤 안내에 따라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세경 기자

한국콜마, 안티에이징 화장품 산업부 '세계일류상품' 인증

한국콜마가 개발한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 '에터미 앵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글로벌 시장 차세대 명품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콜마는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에터미 앵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상품이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에터미 앵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고효능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다.

이 제품에는 화장품 속 효능성분이 피부의 손상된 세포를 찾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하도록 하는 한국콜마만의 특허 기술이 적용됐다.

/이세경 기자